

# “냉골 경험한 이들 한데 뭉쳐 더 추운 이웃에 온기 전하죠”



취약계층 주거 개선 목포미항주거복지센터 양의열 대표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여전히 많습니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때문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 봤기에 우리 ‘목포미항주거복지센터’는 더욱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해주며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는 목포미항주거복지센터(이하 미항) 양의열(59) 대표. 목포시 경동초 자리한 미항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직원과 고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양 대표와 직원 모두가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항은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목표로 설립됐다. 취약계층이라는 특정대상을 목표로 한 이유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였다. 양 대표는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갑작스런 위기는 개인과 가정에 미쳐 대응할

## IMF때 다 잃고 막노동 전전 힘든 시절 만난 5명 의기투합 2008년 후 500여가구 수리 직원 노후 위해 철물점 열 것

시간도 주지 않았다.

“사람을 부리던 입장에서 사람에게 부려지는 입장이 됐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뒤흔었던 아파였는데 급식비를 챙겨주기도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낯선 나라에서 재기를 꿈꾸며 가장이란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없이 추락하는 제 자신을 보며 정말 처참한 심경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재기도 쉽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전국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닦지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막노동’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

았다. 새벽 4시부터 일감을 찾아 근로자대기소를 찾았지만 번번이 허탕치기 일수였다. 하루 벌어 그날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일을 준비하기란 불가능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 현실은 달랐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왕 할거면 ‘남의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공사장에서 막걸리를 주고 받으며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만난 양 대표는 ‘아름다운 목포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뜻을 담아 ‘미항’(美港)을 만들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기에 취약계층을 돕자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렇게 직원 다섯 명과 미항이란 이름으로 주거개선사업을 시작했다.

큰 돈을 벌 수는 없더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를 잃지 않았다. 덕분에 2010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됐다. 목포시 등 지자체에서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을 찾아 지붕과 화장실, 창틀과 보일러를 수리해주었다. 지금까지 500여 가구의 공사를 진행했다. 2014년부터는 목표를 넘어 해남, 강진, 완도까지 공사를 맡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아 시공하

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다.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집이지만 막상 가보면 오히려 먹고 살만한 환경일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취약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비를 털어서 돕고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양 대표는 미항에서 은퇴할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작은 철물점을 만들 생각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잊지 않는 직원들을 만난 게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한다.

“공사를 전전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항을 통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미항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일감에 의존해 임대료를 내고 월급을 마련하느라 매달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직원 모두를 정구적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믿어준 만큼 그들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목포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 함평축산농협, 이웃돕기 물품 전달



함평축산농협(조합장 임희구)은 최근 함평읍 한우프라자에서 관내 소외계층에게 1300만원 상당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 담양경찰서 의경들, 동산요양원 봉사활동



담양경찰서(서장 이용석) 소속 의경대원들은 최근 무정면 동산요양원을 찾아 과일박스를 전달하고 말벗해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o@kwangju.co.kr

## 김건식 강진 병영주조장 대표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강진군 병영주조장 김건식(광주일보 2013년 7월 5일자 18면)대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최종 지정됐다.

식품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계승·발전과 식품가공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식품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사전 평가 후 적임자에 한해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사와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엄선하고 있다.

김건식 식품명인은 약 58년을 밥맛으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연구 했으며,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병영면 수인산의 깨끗한 물, 친환경 강진 햅쌀과 보리쌀, 국산 오디와 복분자 등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여 술을 빚고 있다. 이번 김 대표가 식품명



인으로 인정된 보유기능은 ‘병영소주 제조’ 기능으로 보리쌀과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 광주상의 박흥석 회장, 사회복지모금회에 1억 기탁

광주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력기산업 회장)은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성금 2000만 원과 치약과 세제 등 성금품 8000만 원 등 1억 원 상당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에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품을 광주지역에서 힘겨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30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광주·전남 공동모금회에 일본 지진피해성금 1억 원, 필리핀 태풍피해성금 1억 원 등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성금품을 각계각층에 기탁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중흥장학회, 지역 중·고생에 3100만원 장학금

향토기업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사진)을 모기업으로 둔 중흥장학회가 30일 지역 중·고등학생 34명에게 3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속 학교로 보내졌다.

정창선 회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모든 회사 임직원의 노력과 맘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인 만큼, 그 뜻을 되새겨 학생들이 큰 희망과 꿈을 펼칠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학생들에



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백도인 백산건설 대표 장흥초에 1000만원 기탁

백산건설 백도인(54) 대표가 최근 장흥초등학교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백 대표는 최근 도내 초등부 가운데 명문 축구팀으로 알려진 장흥초등학교 축구부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을 기탁한 것.

평소 고향사랑 정신이 남다른 백 대표는 ‘기업이윤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신에 따라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1억원과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내 탐진장학회



에 1억9000만원, 장흥학당에 30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10여억원에 달하는 장학금 및 후원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또 광주 유정전사유나 대표(광주 학동)로서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등밀어주기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광해남

여느 땅과 같지만, 그곳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곳

# 우리 오늘 해남에 감사다!





고산윤선도유물박물관



망갈림



해남공룡화석지





도솔암



경강술래



고보하는 성응이순신